

3

옛이야기 속에 담긴 지혜

◆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을 찾아봅시다.



그림을 보고 어떤 교훈이 담겼는지 생각해 봅시다.



강물에 빠뜨린 칼

한 나그네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명검을 허리에 차고 먼 길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강에 도착해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배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으려고 허리에 찼던 명검을 풀어 배 가장자리에 세워 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크게 흔들렸고, 배 가장자리에 세워 두었던 명검이 강물에 빠졌습니다. 깜짝 놀란 나그네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품속에 있던 단검을 꺼내서 명검을 떨어뜨린 배 가장자리 부분에 x자 표시를 새겼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멈추면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뱃사공이 빨리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는 배 가장자리에 x자 표시를 한 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에 떨어진 곳을 표시해 두었으니 천천히 찾아도 괜찮습니다.”

어느덧 배가 나루터에 도착했고, 나그네는 배에 x자 표시가 된 자리에서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물 속을 찾아봐도 명검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그네의 모습을 보고 뱃사공이 말했습니다.

“검을 빠트렸던 곳에서 한참을 지나왔는데 그 아래에 칼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제야 나그네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요새와 조개를 얻은 어부

옛날에 중국의 조나라와 연나라가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에 연나라 왕이 소대라는 신하를 조나라에 보내 화친을 청했습니다. 소대는 조나라 왕을 만나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조나라로 오면서 강가를 지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조개 한 마리가 햇볕을 쬐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요새가 조갯살을 쪼아 먹으려고 조개 입속으로 부리를 집어넣었습니다. 깜짝 놀란 조개가 열린 입을 다물어 버렸고, 도요새의 부리가 조개껍질 사이에 물렸습니다. 도요새는 오늘과 내일 비만 오지 않으면 조개가 바짝 말라 죽을 것이라고 여겼고, 조개는 조개대로 오늘과 내일 입을 벌려 주지 않으면 도요새가 죽을 것으로 여겨 입을 꼭 닫고 버텼습니다. 때마침 지나가던 어부가 도요새와



조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망태기에 넣었습니다. 지금 조나라 왕께서는 연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우리 두 나라가 서로 싸우다 보면 결국 주변의 다른 나라가 어부처럼 이익을 얻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이 상황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대의 말을 들은 조나라 왕은 과연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여 연나라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중지하였습니다.



1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나그네가 배 가장자리에 x자 표시를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3 도요새와 조개의 비유를 들은 조나라 왕은 어떻게 했나요?

2 글에 관련된 고사성어를 찾고 그 뜻을 알아보시다.

강물에 빠뜨린 칼	고사성어	
	뜻	
도요새와 조개를 얻은 어부	고사성어	
	뜻	

3 그림이 나타내는 알맞은 낱말을 써 봅시다.



• 이름난 칼이나 좋은 칼



• 나룻배가 떠나고 닿는 곳



•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툼 없이 가까이 지냄.

4 글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 써 봅시다.

강물에 빠뜨린 칼	
도요새와 조개를 얻은 어부	

5 이야기를 읽고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찾아봅시다.

상길이와 박 서방

어느 마을에 ‘박상길’이라는 나이 지긋한 백정이 장터에서 푸줏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양반 두 명이 나이 많은 백정 박상길의 푸줏간에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푸줏간에 들어서자마자 한 젊은 양반이 박상길에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상길아, 고기 한 근 나오.”

백정 박상길은 “네, 네, 그러지요.” 하며 고기를 한 근 베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고기를 사러 온 또 다른 젊은 양반은 아무리 백정이라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 박상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 서방,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

백정 박상길은 “네, 네, 그렇게 합죠.”라며 숨쉴 좋게 고기 한 근을 듬뿍 잘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근의 양이 먼저 고기를 샀던 양반의 고기보다 갑절은 되어 보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젊은 양반이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상길이가 이놈! 똑같이 고기 한 근을 샀는데 어째서 이 사람의 것은 많고 내 것은 적으냐?”

그러자 백정 박상길이 허리를 굽실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네, 그야 손님 고기는 상길이가 자른 것이고, 저 어른의 고기는 박 서방이 잘랐으니까요.”



● 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이 무엇인지 찾았나요?

